

8-9 세기 張保臯의 海上活動 - 새로운 研究 시각에 대한 批判 -

姜 祥 澤*

< 目 次 >	
I. 머리말	
II. 既存 研究 成果의 問題點	4) 歸國動機와 淸海鎮設鎮
III. 張保臯의 海上活動에 대한 새로운 視覺	5) 赤山法華院의 再解釋
1) 海上活動	6) 明州港과 보타도
2) 僑民社會의 性格	IV. 새로운 研究 視覺의 問題點과 批判
3) 海上貿易	V. 맺음말

I. 머리말

張保臯 大使에 관한 연구는 莞島 文化院의 <張保臯의 新研究>¹⁾ 와 海洋經營史 研究²⁾ 의 <張保臯> 및 國內연구자³⁾ 들에 의해서 비교적 1차적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既 研究 되어진 1차적 연구는 연구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시 해준 데 불과하다. 그것은 완도 문화원에서 발간된 張保臯의 新研究에서 研究者들이 공통으로 張保臯의 出生지를 莞島로 설정한

* 韓國海洋大學校 教授

1) 莞島文化院,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2) 海洋經營史研究, 『張保臯』, 圖書出版 李鎮, 1993

3)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淸海鎮大使 張保臯를 主로 하여」, 1.2 『震檀學報』, 1934, 1935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論文輯』14, 韓國海洋大學, 1977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것부터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그 외 張保臯의 姓名과 출자(出自), 張保臯의 政治史的 위치, 張保臯 勢力의 형성과 관련한 내용은 같은 방향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提起된 여러 가지 문제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8-9 세기에 걸쳐 나타난 張保臯 大使의 해상활동에 관한 既存의 研究成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을 통하여 諸問題들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의 제기는 김성호⁴⁾씨 에 의해 상당한 분량에 걸쳐 張保臯의 해상활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밝혀주고 있다.

물론 김성호씨의 연구내용은 다소 소설적이며 연구자 개인의 독선적 입장에서 처리된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張保臯 대사에 관한 연구가 완결되었다 라는 안일한 시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한번쯤 考察 되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지금까지 研究 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張保臯의 출생과 관련한 문제와 新羅坊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張保臯의 渡唐 문제와 唐에 거주하는 신라방 구성원들을 이주 1세대로 한정하여 연구된 점과 청해진 설진 문제를 놓고 張保臯의 출생지역과 완도지역을 일관되게 연결하여 편향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경우는 김성호씨의 中國 揚州大 朱江 교수⁵⁾와 延邊大 李宗勳⁶⁾씨 등인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은 그 타당성의 여부보다 張保臯 연구에 있어 既研究의 틀을 벗어나 좀더 밀도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張保臯의 해상세력을 규명하는데 있어 자료의 빈곤 때문에 그의 무역활동과 관련한 해상활동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과 그의 淸海鎮 설진 目的이 과연 「三國史記」의 기록과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4) 김성호,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맑은소리, 1996

5) 朱江, 「唐과 新羅의 海上交通」, 「張保臯」, 圖書出版 李鎮, 1993

6) 李宗勳, 「中國 山東半島 에서의 張保臯와 新羅人들」, 「張保臯」, 圖書出版 李鎮, 1993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新羅나 唐의 직관 지에도 나타나지 않는 大使라는 호칭과 성격, 新羅坊·新羅所의 惣管, 押衙가 가지는 호칭의 성격과 당의 정치적인 한계 등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張保臯의 해상활동 기반이 된 신라인의 거류집단을 既 연구에서 정리된 것처럼 자치기구인 蕃坊의 성격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이민 1세대인 張保臯에게 어떤 연유로 협력되어졌는가 하는 의구심도 그대로 남게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본 1차 사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新唐書」, 「樊川文集」, 「圓仁行記」 등에 나타나는 단편적 자료로서 추이되었으며 일본의 1차 사료인 「日本書記」, 「續日本記」를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1차적 사료중 어떤 곳에도 張保臯 개인의 해상활동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신라인 거류집단의 성격도 고구려, 백제, 신라인의 혼합적 집단체로서 민족 동일체라는 연구의 성과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김성호씨의 방대한 연구의 결론(海上活動의 起源과 發展은 비류 백제인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에는 어떤 입장에서라도 동의 할 수 없지만 張保臯 대사의 해상활동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김성호씨의 연구내용을 대비하여 分析하고 批判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정립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1차적 자료를 통해 규명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재분석 해야할 것인가를 정리해 갈 것이다. 즉, 張保臯의 出生으로부터 唐으로의 移住과정과 唐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연구의 시각을 확대해 볼 것이다.

Ⅱ. 既存 研究 成果의 問題點

지금까지 張保臯에 관한 연구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해운산업과 국제무역을 개척했다는 점과 東北아시아의 해상권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해상왕국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既存 연구의 내용은 張保臯의 존재와 8-9세기에 걸쳐 羅·唐 사이에 놓여져 있는 시대적 정황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한 영웅적 巨商으로 정립했지만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既存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왜 張保臯가 日本이나 中國, 그 외 국가와의 해상무역이 가능했는지에 대하여는 圓仁行記에 의존한 추정적 결론만 가능했을 뿐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나 구조적 상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가 단지 단순한 국제 해상 무역상이라 해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사료(官撰史料)를 통해 私貿易의 형태나 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나 경제구조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역설적인 시각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단지 圓仁行記의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8-9세기의 중국의 상황과 신라인 居留集團의 사회구조를 통해 유추되어 졌다는 점에서 既存 연구의 성과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 내용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新羅와 海上國家

既存의 연구⁷⁾는 張保臯의 활동과 관련하여 8-9세기에 신라는 해상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金庠基⁸⁾ 교수는 「張保臯는 黃

7) 姜祥澤, 「張保臯大使에 관한 研究動向」, 『海洋文化』, 海洋文化研究所, 1996
金庠基教授 以後 國內 研究者들의 研究動向을 정리하였다.

海를 중심으로 朝鮮海峽의 해상권을 장악하는 일면 해외 신라인의 세력 배경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李基東⁹⁾ 교수는 張保臯가 무역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국 각지에 분산 되어있던 신라인 사회를 청해진을 본영으로 한 자신의 交易網 속에 유기적으로 편재한데 있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이미 李永澤¹⁰⁾ 교수에 의해 지적된 사실이다.

그 외 E. O. 라이사워¹¹⁾ 교수는 중국 동부와 신라, 그리고 일본사이의 무역은 대부분 신라인의 손아귀에 장악 되었다라고 정의했다.

또 일본의 日野開三郎¹²⁾씨는 신라 해상무역의 융성은 당나라 말기까지 200여년 계속되었으며 동지나 해를 재패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8-9세기의 신라를 해상왕국으로 규정한 연구는 張保臯의 해상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張保臯의 海上活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제반 문제점들이다.

이들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에서 제시된 기존의 연구성과는 8-9세기에 걸쳐 신라가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재패한 해상 무역왕국으로 존재 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물론 역사 속의 張保臯에 대한 재조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張保臯의 짧은 在唐활동기 (23년)를 통하여 해외 신라인을 총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연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환언하면 張保臯의 해상활동을 가능케 했던 배경, 즉 在唐 新羅人 사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고찰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신라를 海上國家라고 정의한 既 연구의 결론은 張保臯의 해상활동을 가능케 한 이유를 해외신라인의 세력 배경 내지 해외 신라인 사회를 청

8) 金庠基, 前掲論文 註 3과 同

9) 李基東, 「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 『歷史學報』, 歷史學會, 1997

10) 李永澤, 前掲論文 註3과 同

11) E.O. Reischauer, 『Ennin's Di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12) 日野開三郎, 「羅末 三國의 鼎立と 對 大陸 海上交通 貿易」, 『朝鮮學報』 제11집, 1995

해진을 본영으로 한 자신의 交易網속에 유기적으로 편재한데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在唐新羅人의 사회구조 및 그 형태에 관하여 연구된 내용은 圓仁 行記¹³⁾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山東에 거주하는 신라인 사회를 전담하는 기관인 「句當新羅所」가 있으며 이 기관의 장은 신라인 張詠이 관장하였다. 장영은 句當新羅所의 押衙인 동시에 平盧軍節度同斗將 겸 登州諸軍事押衙와 新羅通事押衙 등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張保臯의 귀국후 赤山法花院을 관리하는 3인 중의 한사람 이었다. 이와같은 기록을 통해 볼 때 「句當新羅所押衙」는 山東지역 신라인의 村部를 통괄 대표하는 직명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신라방·신라소는 당의 일반 행정구역과는 독립된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특수구역으로 어느정도 唐 政府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사회구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在唐 신라인 사회가 어떻게 張保臯와 연결되어지며 渡唐 1세대로서 긴 시간동안에 형성된 在唐 신라인을 張保臯의 해상무역과 연결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단지 既 연구는 원인 行記를 통해 재당 거류민들은 張保臯의 군사적인 재능과 그의 독특한 개성, 폭넓은 도량과 의협심으로 재당 신라인 사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라 보고 있다.¹⁴⁾ 또한 古代로부터 중국으로 移住하여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한민족은 물론 羅,唐 연합군에 쫓겨 自·他의로 중국에 流入되었던 移住民과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배로부터 이탈하고자 했던 流浪集團 등 유동적인 세력을 결속시킴으로서 張保臯는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추정은 張保臯가 徐州 武寧軍 軍中 小將 으로서의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재당 居留民을 통괄할 수 있었던 어떤 기록이나 행적을 찾아야하지만 단지 圓仁의 行記에 의

1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申福龍 譯, 精神世界社, 1991

14)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15) 金德洙, 『張保臯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 『韓國海運學會誌』, 韓國海運學會, 1988

존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張保臯가 관여한 韓·中·日 3국간의 貿易과 張保臯가 추진한 신라 해운사업의 발전 등과 관련하여 張保臯의 唐에서의 행적과 淮南 지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로 있다는 점이다.

淮南道는 楚州와 揚州가 있어 淮河를 이용한 남북운하의 중심지이며 해외 동서 교통의 요충지이다. 신라 선박이 북쪽 항로 즉 일본, 신라, 淮南의 항해를 장악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는 데도 朱江교수¹⁶⁾에 의해 張保臯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의 문헌에 전혀 기록이 없다.

2) 新羅 1천년의 역사를 통해 신라 상인이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없고 해외 무역상이 신라를 찾아온 기록(三國史記, 三國遺事)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張保臯의 무역기록도 없다.

단지 圓仁 行記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료를 통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圓仁 行記를 통해서 본다면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신라방·신라소를 근거로 활기찬 생활을 하며 직업적으로 분화된 僑民社會가 과연 1세대만에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新羅坊·新羅所의 僑民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에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4) 海上活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圓仁의 기록은 中國 最南端의 廣州로부터 蘇州·揚州·楚州·漣水縣·山東半島·文登縣·赤山浦까지 중국 동안 전역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활동되어지는 在唐 신라인들의 거대한 해운 조직은 張保臯 등의 특정한 개인에 의해 운영된

16) 朱江, 前揭書, 註5와 同

것이 아니라 당과의 정치적 문제점을 통해 거류집단의 성격을 분석해야 하는 再 研究가 요구되고 있다.

5) 在唐 新羅 居留民 사회의 성격을 단지 唐으로부터 인정된 自治機構로 해석하면서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짓고 있다. 그러나 재당 신라인 居留民 사회의 성격은 신라인 만의 집단 거주지가 아니며 古代로 부터 張保臯 활동기 까지 高句麗, 百濟, 新羅 그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당 신라 거류민 사회의 정확한 성격의 분석이 있고난후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재당 교민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6) 張保臯의 淸海鎮 設置와 관련하여 歸國 動機에 관한 연구성과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張保臯의 歸國動機에 관해서는 在唐시절 중국 해적선이 신라 양민을 납치하여 노비로 賣買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분을 금치 못하여 이를 掃蕩해야겠다는 결심에서 귀국했다는 1차적 사료(三國史記)에 의한 연구가 일반적이다. 이와같은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신라 하대 慢性的 饑饉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하려는 移住 희망자들을 輸送하는 群小 해상세력들을 張保臯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한편 재당 신라인 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羅.唐.日의 삼각무역을 장악하려는 계획으로 귀국했다는 견해도 있다.¹⁷⁾ 이와는 달리 821년 李師道의 藩鎮 토벌이후 兵員의 數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張保臯가 軍을 떠나게되어 귀국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⁸⁾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국내(新羅)의 군소 해상활동 세력의 근거와 李正己 일가의 몰락후의 당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또한 「唐語林」의 기록에 나타나는 唐船舶建造 문제를 통해 신라선

17) 李永澤, 前掲書, 註3과 同

18) 蒲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臯と擡頭와 反亂」, 『朝鮮史 研究會 論文集』16, 1979
李基東, (前掲論文 註 3과 同) 씨도 같은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박의 건조와 신라선박의 유형에 대한 문제를 再 정립해야하는 문제이다. 기록(唐語林)에 보면 「선박 건조에 있어 한 척에 백만 전을 사용하였다. ... 양자 지역에 몇 개의 조선소를 설치하고 열 명의 전문적인 관원을 두었고 건조된 배는 2,000여척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최근 唐代의 揚州 경내에서 발견된 몇 척의 木造帆船의 잔해와 출토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은 양주·양자현·양자진의 동쪽이며 또 한곳도 揚州 海陸圈 如臯鎮 서쪽이다.

이 두 지점은 모두 唐朝로부터 揚州로 나가는 출구이며 또는 상륙지점이다. 「唐語林」¹⁹⁾의 기록에는 여기서 入 出航하는 船舶에는 신라의 통역인과 선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박 건조문제와 선박유형에 대해 대략적인 것이라도 추정할 수 있다면 唐·新羅, 日本의 해상교통과 신라선박의 요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연구가 미진하다.

Ⅲ. 張保臯의 海上活動 研究에 대한 새로운 視覺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은 김성호(農業史 研究) 씨로서 既存의 연구에서 제시된 張保臯의 실체, 즉 莞島出身의 張保臯와 新羅坊; 新羅所의 신라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류백제와 연결한 百濟人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의 견해가 가지는 기본적인 視覺은 8-9세기 해상 활동을 주도한 신라방, 신라소의 거류민들이 가진 海運技術 및 航海術 등은 긴 세월을 통해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기부터 중국으로 이주되어진 비류백제인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敍述된 이야기일 것이다. 단지, 그의 논거는 방대한 사료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19) 「唐語林」의 內容은 朱江 教授「唐과 新羅의 海上交通」, PP.242 內容 再引用

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張保臯의 出者와 姓에 대하여 既研究者들이 활용한 1차 사료(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弓福, 弓巴 라는 이름을 가진 張保臯가 당에 와서 張氏성을 얻었다는 논거를 일축하면서 張保臯와 동시대 인물인 張詠, 張從彥, 張支信 등 張氏가 많았는데 張保臯가 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張保臯의 渡唐設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지의 전개는 張保臯의 출생지역이 완도라는 것과 그리고 당으로의 移住 1세대로서 武寧軍 軍中 小將이 되었다는 중국측 사료²⁰까지도 부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백지화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김성호씨는 張保臯가 對中·對日, 貿易을 개척했다는 장미빛 환상에서 눈을 떠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張保臯는 在唐新羅人 중 한 사람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莞島 淸海鎮은 신라의 대외 진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在唐 新羅人들의 신라 진출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김성호씨의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는 張保臯, 高麗 太祖 王建, 까지도 신라인이 아닌 百濟 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 권으로 된 김성호씨의 저술은 다소의 소설적 요소와 함께 하고 있다. 그의 저서 상·하 권 중에서 張保臯의 해상활동에 국한하여 그의 새로운 시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張保臯의 해상활동

김성호씨는 新羅가 海上國家라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증거 자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였다. 즉, 新羅 1천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신라 商人이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고 海外貿易商이 신라로 들어온 기록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장보고의 貿易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논거는 관찬사료인 「三國史記」와

20) 『樊川文集』: 杜牧(803-852)의 詩文集으로 張保臯, 鄭年의 記錄을 남기고 있음, 杜牧은 張保臯, 圓仁과 同時代 人物임

정사가 아닌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러면서 씨는 신라를 해상국가로 본 既存연구가 圓仁行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호씨의 지적은 圓仁行記에 나타난 신라인을 통일신라 말기에 도달한 제 1세대 신라인으로 보았다는 오류의 지적. (圓仁行記:승화5-6-28): 圓仁이 승선했던 「제1선의 新羅譯語 김정남이 양주 굴항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제 백수를 넘었으니 굴항을 통과한 것 같다.」

(圓仁行記: 개성3-8-1): 「제2선 신라역어 박정장이 김정남에게 서신을 송부해왔다.」

일본의 당시 法令集(延喜式:927)²¹⁾을 보면 신라로 파견하던 선박에는 신라역어를 배치하지 않고 오로지 당나라로 파견하던 遣唐船에만 新羅譯語와 新羅水手를 배치하였다. 이는 곧 신라역어가 신라어 통역이 아니라 실은 日本語-中國語 통역이었음을 말하며 신라역어는 한반도의 신라인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던 재당 신라인 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재당 신라인들은 이주 1세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張保臯도 度唐한 1세대 新羅人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海上國家라고 할 때 그 국가는 航海術+土. 農. 工. 商의 분화에 따른 商人集團이 있어야하고 民間資本 내지 商業資本이 축적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와 같은 해상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구조가 갖추어 진 국가가 아니므로 張保臯의 실체는 唐나라에서 무역활동을 하다가 신라로 온 商業集團이며 신라에서 당으로 이주해온 移民 1세대가 아니란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圓仁行記²²⁾에 나타난 기록 중 圓仁이 양주에

21) 「延喜式」(927) 「入諸蕃使條」, 藤原時平, 日本의 法令集

22) 圓仁, 「入唐求法 巡禮行記」, 開成四年(839) 四月1日 條, 大中 元年(847) 閏 3月 17日 條, 大中元年(847) 四月26日, 27日 條 參照

서 문등현으로 오는 과정에서 신라인 무역상과 造船集團, 암해자, 신라 역어, 솟장사, 상인, 낭자 등 수많은 신라인들을 목격하고 만 났다라는 자료를 통해 김성호씨는 이렇게 많은 신라인들은 해운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 거대하고 조직적인 해운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방, 신라소를 중심으로 하여 職業的으로 분화된 교민사회는 결코 이민 1세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호씨의 주장과 같이 張保臯의 실체가 이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김성호씨의 논거 중 在唐 居留民의 集團인 新羅坊 新羅所의 성격규정에 있어 물론 渡唐 1세대가 아님은 당연한 이치이며 또한 거류민 전체를 신라인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한다해도 張保臯의 對唐활동까지 渡唐 1세대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僑民社會의 性格

김성호씨는 張保臯의 해상활동에 관한 논거 제시 중 신라방, 신라소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圓仁行記의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張保臯가 淸海鎮 大使로 옮겨갔을 때 赤山 法花院을 관리한자는 신라소 책임자였던 林大使, 新羅譯語:張詠, 소천勾當:王訓이 공동관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圓仁行記(개성 5-1-15)에 나오는 2개월간의 겨울철 법회 중 「합숙한 남녀 신도 250명에 대해 민족적 언어 공동체와 신앙공동체를 지적하면서 僑民社會가 성숙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적산포는 圓仁行記(개성 4-6. 28)의 기록 중 「張保臯 交關船 2척을 이끌고 온 최운십이랑과 대면하였다는」 기록과 圓仁行記(개성 4-8,13)의 기록에서 「발해 교관선이 왔다는 소식도 들었다라는」 것을 인용하여 赤山浦야 말로 재당 신라인들이 활동하던 民間貿易센터로 저

적하고 있다.

김성호씨는 이와 같은 교민집단의 활동범위는 중국 최남단의 광주로 부터 明州, 蘇州, 揚州, 楚州, 連水縣 및 山東半島의 文登縣, 赤山浦까지 中國東岸 전역을 커버하는 大集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圓仁行記 (개성4-윤1-4)의 내용중 「신라역어 김정남은 초주에서 신라선 9척을 용선 하고 양주에서 都匠, 番匠, 船工, 鍛工 등 36인을 모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揚州에 대규모 造船集團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在唐新羅人들의 海運組織은 張保臯와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설치된 신라방, 신라소에 既存한 거대한 海運體制가 하나의 관행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역설하면서 張保臯의 실체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물론 김성호씨의 주장처럼 신라 1천년의 역사 중 해상무역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위에서 지적된 거대한 해운체제는 당나라 문헌에도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적산포에 관한 기록도 없다.

여기서 김성호씨는 당나라 문헌들이 민간무역을 기록하지 않았음은 곧 당시 民間貿易이 在唐新羅人들의 民族的 獨占事業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지만 다소의 문제가 있으며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성호씨의 결론적 주장에서 밝히고있는 내용중 재당 신라인들의 사회조직은 언어적, 신앙적, 공동사회를 기층으로 하여 唐나라 사람들이 극도로 기피하던 海上分野에 특화된 직업적인 이익 사회였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만약 재당 신라인에 의해서 당의 사무역이 전담되어 졌다면 唐代의 해상활동과 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쉽게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나누어 문제성을 가진 부분만 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 新羅坊, 新羅所의 實體

김성호씨는 신라방, 신라소의 성격을 당나라 地方官制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 해주고 있다. 북송때 朱彧(주옥)의 「萍州可談」권2를 인용하여 北宋時 廣州蕃坊과 新羅所, 新羅坊의 組織과 기능을 대비시켜 신라방, 신라소를 唐나라 地方官制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萍州可談의 記錄은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蕃長(외국인장) 1인이 蕃坊公事를 담당하고 外國商人을 맞이하는 것은 고용한 蕃官(외국인 관리)이 담당한다」라고 했다.

김성호씨는 이 기록을 통해 廣州蕃坊의 蕃長이 신라소, 신라방의 호구를 관할했던 大使직에 해당하고 또한 外國商人을 관할하던 蕃官이 圓仁行記에 나오는 新羅譯語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舊唐書」권44 職官志에 규정된 典客署의 임무인데 즉

「四夷로서 歸化한 在蕃者의 인명과 그 수를 관장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재당 신라인들은 귀화한 재번자로 파악되어 唐나라 法令에 의해 중국에 거주가 허용된 小數民族일 뿐 治外法權的 自治權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신라방, 신라소의 책임자를 大使라 할 때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라에서 張保臯에게 부여한 칭호이며 武寧軍軍中小將을 존칭하는 대인 이라는²³⁾ 의미가 아니다 라고 기존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大使란 唐의 軍鎮級에 해당하는 정규관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씨는 이에 대하여 「大唐六典」권5, 兵府條의 「凡諸軍鎮大使副使皆有 僚人」을 인용하여 大使란 군진급 책임자에 해당하는 정규관명이라 단

23)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 「張保臯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PP.78

정하면서 신라소 신라방은 재당신라인들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아니라 자치형식으로 在唐신라인을 관할하던 군진급의 唐나라 地方機構로 정립하였다.²⁴⁾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에서 신라소, 신라방을 재당 신라인들의 치외법권적, 자치권을 가진 집단거주지로 정리되었지만 씨는 결론적으로 재당 신라인들의 교역활동을 위해 唐에서 인정한 자치적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던 僑民들을 稅源確保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묶어둔 唐의 制度的 統制手段 이라고 단정했다.

4) 張保臯의 貿易實體

김성호씨는 張保臯의 해상무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研究²⁵⁾가 밝혀놓은 東亞地域 海上權의 재패라는 결론을 깨고 唐의 淄靑節度使 王智興의 하수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는 圓仁行記(개성4-6-27)의 기록 중 「張大使의 交關船 2척이 赤山浦에 도착하였는데 崔暈十二郎이 이끌던 張保臯의 貿易船이다」라는 기록과 같은책(개성4-8-12)의 내용중 「적산포에 인접된 청산포에도 발해 교관선이 함께 정박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崔暈十二郎은 張保臯의 부하가 아니라 唐나라 물자를 賣却하는 당나라측의 輸出官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씨의 논거는 圓仁行記(개성 4-6-28)중 「張保臯가 파견한 對唐賣物使 崔兵馬使가 절에 왔다」라는 기록과 같은 책(개성5-12-15)의 「崔暈十二郎을 崔押衙라 한점을」 들면서 兵馬使와 押衙의 관명은 당나라의 公式官名 호칭이기 때문에 張保臯가 이끌던 交關船은 신라측 무역선이 아니라 淄靑節度使가 자신의 財政 調達을 위하여 운행

2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五年八月二十七日條, 會昌五年七月三日條

25) E.O Reischauer, 『Ennin's Diary』,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金庠基, 教授 등 既存의 研究者들은 張保臯의 活動에 대해 東亞地域의 海上權을 掌握했다고 主張한다.

했던 半官 半民 형태의 당나라 무역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既存의 研究 결과는 지극히 잘못 이루어진 것이며 張保臯의 활동은 신라 해상국가의 전개 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5) 莞島 淸海鎮 設鎮 背景

既存의 연구는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과 관련하여 1차사료인 「三國史記」 「樊川文集」 등을 통해 海賊의 跋扈로 신라인을 奴婢로 매매하는 것을 보고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진하였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東아시아의 무역권을 재패하여 활발한 海上活動을 전개했다는 것을 정설로 하고 있다.

김성호씨는 張保臯의 歸國動機를 既存의 연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莞島 淸海鎮은 신라의 대외진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在唐 新羅人들의 본국 진출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씨는 이와같은 논거에 대한 背景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張保臯가 淸海鎮 設鎮을 위해 귀국했을 때 호칭 되어졌던 張保臯 大使라는 칭호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신라에서 授與한 관직명이 아니라 張保臯가 唐나라 大使 자격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張保臯를 처음부터 大使라 칭했다. 이 大使라는 官名은 唐나라 군진급 책임자의 관호이다.

② 張保臯의 귀국과 洪덕왕이 兵卒 萬人을 주었다는 것은 「樊川文集」의 記錄일 뿐이다.

兵卒의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兵權을 외래자에게 주었느냐가 문제이다.

이 時代(9世紀)에는 王을 제외한 어떤 貴族도 兵權을 個人的으로 보

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신라를 外交的으로 통제하던 淄靑節度使 소속의 大使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책봉국 이었던 신라로서는 張保臯에게 兵權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야한다.

③ 후일 新羅 朝廷의 王位 爭奪戰에 패한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도피해 왔다. 新羅朝廷은 당연히 叛逆者를 체포 해야 하지만 逮捕令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청해진의 성격은 신라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난 治外法權的인 조차지였다.

씨는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통해 張保臯의 청해진 설진에 대해 신라인들의 대외진출이 아니라 在唐新羅人의 本國進出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歷史의 背景은 唐의 淄靑節度使 王智興에 의해 이루어진 貿易構造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6) 赤山法花院의 再解釋

기존의 연구는 赤山 法花院은 張保臯에 의해 창건 되었고 이 寺刹은 在唐 新羅人들의 정신적 종교적 集會所의 구실과 貿易 관계 종사자 들을 위한 숙박소 로도 제공되고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²⁶⁾ 김성호 씨는 法花院을 張保臯 개인의 信仰處가 아니라 新羅 僑民社會의 航海 寺刹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법화원의 창건은 張保臯 개인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唐 政府(淄靑節度使)의 財政的 支援아래 창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圓仁行記(개성4-6-28)중 「신라로 향하던 唐의 사신 청주병마사 吳子陳과 崔부사 및 왕판관등 30여인이 방문했던」 기록을 통해 安全航海를 위한 기도의 목적이라 해석하면서 법화원은 적산포의 항해사찰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씨는 중국 全國農業區劃委員會

26)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PP.76 李基東, 「張保臯와 海上王國」, PP. 107

의 農業資源要覽²⁷⁾ 을 통해 圓仁行記(개성4-6-7)의 「一年得五百石米」였다는 자료중 5百石 쌀의 수확이 가능한 面積을 산출하고 있다. 즉 唐나라의 척도는 5척이 1보이고 240步가 1畝이면 이를 坪으로 환산하면 163평이며 100畝일 때 163,000 坪에 달하는 대단한 面積으로 파악하고 이는 張保臯 개인의 소유일 수 없는 큰 面積이기 때문에 唐政府의 財政支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唐政府의 지원과 관련하여 唐 中葉 현종때 발생한 안사의난(755-762)을 통하여 발호하였던 高句麗系の 李正己 일가의 勢力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張保臯는 李正己 一家를 소탕한 徐州 王智興의 軍中小將을 역임하고 있었고²⁸⁾ 李氏一家의 蕃鎭발호가 종식된 원화14년(819)에 登州 文登縣에 신라소를 설치하였다. 그후 張保臯를 제1대 大使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李氏一家가 장악하고 있었던 文登縣 赤山浦일대에 1,000 畝의 땅을 주어 法花院을 創建 시켰다는 것이다. 김성호씨는 이와같은 唐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楚州와 漣水縣등지의 新羅坊도 唐이 관장 하는 地方組織의 일환으로 일괄 설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貿易商들의 活動과 明州

김성호씨는 지금까지 唐 에서의 僑民社會가 가지는 중심적인 海上貿易地인 赤山浦 대신 明州 寧波市를 새로운 海上活動의 중심지역으로 지적하면서 百濟人의 對唐 海上活動 근거지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임을 제시하고 있다.

절강성 杭州灣-明州-舟山群島-普陀島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곳이다. 圓仁行記의 기록²⁹⁾ 과

27) 全國農業區劃委員會, 「中國農業資源與區劃要覽」, 測繪出版社, 1987

28) 「樊川文集」, <新羅人張保臯 鄭年者 自其國來徐州 爲軍中小將 保臯年三十> - 張保臯의 武寧軍軍中小將이 되었다는 유일한 記錄이다.

29) 圓仁行記,

會昌七年 閏三月十日 「우리는 明州로 가서 日本의 神御井 의 歸國하는 問題를 相議

航路, 또는 무역항 으로서의 明州에 관해서는 일부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舟山群島의 新羅礁와 普陀島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김성호씨는 보타도를 新羅藩으로 설정하고 청해진의 지명과 普陀島의 지명이 유사한 점을 들어 張保臯의 活動根據地 일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다. 씨는 이와 같은 가설을 정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³⁰⁾

우선 圓仁行記에 나타나는 在唐 新羅人으로서 貿易商으로 활동하던 지역을 보면

① 楚州 <新羅船 9척과 암해자 60여명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었던 해운조직의 중심센터>

② 漣水縣 <張保臯 몰락후 그의 교관선을 몰던 崔暈十二郎이 이곳 신라방에 근무>

③ 揚州 -貿易商이던 왕척이 있었고 또한 신라선을 建造하던 船工集團이 있었다

④ 蘇州 -장강과 抗州灣을 연결하는 江南운하의 최대 요충지인 만큼 신라방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지적된 곳이 절강성 항주만의 명주(영파시)이다. 이 明州에 관한 기록은 圓仁 行記의 기록엔 귀국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지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단지 김성호씨의 논거에 의하면 명주는 중국과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번(蕃)으로써 신라인들의 집단거주와 선박의 건조, 선박의 운항을 이루어 왔던 곳으로 이곳은 이주민 1세대가 아닌

했다.」,

會昌七年六月五日「--明州에 있던 日本人들은 이미 일찍 떠난 것을 알았다.」

30) 1. 「唐會要」, 卷78. 諸事雜錄(上), 元和14年(819年)8月條 --舟山群島獨立에 관하여

2. 「續日本記」, 寶龜5年(774)5月17日條 「此年新羅藩人頻有來者」--新羅蕃에 관하여

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1124----普陀島에 관한記錄

4. 무함마드 간수, 「新羅아랍-이슬람諸國關係史研究」, 檀國大學校, 學位論文, 1990. PP. 59 普陀島地名인 -Kantu에 관하여

5. 「新唐書」卷144 - <鄧景山傳> 揚州-아랍인들의 대거 密集에 관하여 그의 日本, 中國學者들의 論文을 대거 引用하고 있다.

비류백제 이후에 형성된 특수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 ⑤ 明州-新羅 貿易商이 集中된 곳
- 장지신
 - 이인덕사랑
 - 춘대랑
 - 신일랑

장지신(張支信) - 844년 7월 (續日本後記), 847년 6월(安祥寺 자재장), 862년 7월, 864년 8월(삼대실록)의 기록에 張支信이 나오며 일본 문헌에는 張友信으로 기재되고 있다. 장지신은 무역상겸 신라역어로서 적산법화원을 근거로 하였던 張保臯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김성호씨는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貿易商의 활동은 신라인들의 자치기구인 신라방, 신라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김성호씨는 명주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舊唐書」권44 職官志에 나타나는 기록중 四夷로서 「歸化한 在蕃者」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在唐新羅人들을 당나라 법령에 의해 중국내 거주가 허용되었던 소수 민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씨는 普陀島를 新羅蕃 내지 新羅國으로 보고 선박을 생활단위로 하는 일종의 부족 연합체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보타도는 在唐新羅人들의 활발한 海外通商의 중심지역으로 동남아 일대와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진출했던 세계사적 차원의 해상민족 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제시한 새로운 시각은 한번쯤 재 고찰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모든 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8-9 세기의 해상활동 자체를 明州 중심의 비류백제인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張保臯의 실체도 百濟人으

로 보아야한다는 견해는 다소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Ⅳ. 새로운 研究 視覺이 가지는 問題點

새로운 研究 視覺 이라고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의 張保臯 대사에 관한 研究가 일정한 수준에서 完成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研究의 機會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문제는 百濟史의 측면에서 日本과 中國의 海上活動을 담당할 계층이 비류 백제인 이라는 가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論議는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김성호씨의 연구성과는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라는 문제보다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방대한 자료의 활용이라는 점에 관심을 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의 성과가 1차 사료에 의존했다면 씨는 어떤 상황에 근접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폭넓은 상상력을 통해 결론으로 이끌어 갔던 점은 평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단순한 想像力이나 소설적 기법으로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씨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張保臯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再接近할 수 있다면 씨의 업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따라서 김성호씨의 연구성과 중 8-9세기 張保臯의 海上活動과 東亞地域의 貿易構造와 관계된 부분만 발췌하여 새로운 연구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 하고저한다.

만약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한 연구부분에서 김성호씨의 주장이 어떤 문제점을 던져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 新羅坊, 新羅所는 唐의 地方官制인가?

김성호씨의 연구성과 중 唐代에 형성된 신라인 僑民社會의 성격을 唐의 地方官制로 파악하면서 기존의 研究成果를 부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씨의 논거에 대해 좀더 관심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在唐신라인들을 歸化한 在蕃者로 파악하여 唐의 법령에 의해 중국내 거주가 허용된 소수 민족일뿐 治外法權的 自治權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과 新羅坊 新羅所의 책임자를 大使라 할 때 大使란 唐의 군진급 책임자인 正規官名이기 때문에 군진급의 唐나라 地方機構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논거는 中國의 朱江³¹⁾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唐代 新羅坊은 단지 인구가 많은 外國人 居住 區域인 蕃坊의 하나이다. 그리고 唐의 楚州는 淮南道에 속했고 淮南 節度使의 관청은 揚州에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揚州의 新羅坊 내지 勾當新羅所 내지 그 事務官員들은 淮南節度의 관할에 속하였다. 따라서 勾當新羅所는 唐朝가 州政府에 설치하여 사무를 전담하는 官公署이며 勾當新羅通使押衙는 唐朝에서 설치한 外國事務를 관장하는 職事官이다.」 이와같은 논거와 성격을 같이하는 중국학자 袁曉春³²⁾ 의 견해도 押衙는 唐代 地方軍事 守備官이고 節度使의 측근 武官인데 타향살이 신라인에게 이와같은 직무를 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또 중국학자 劉永智³³⁾도 「十長」 또는 押衙는 등급이 비교적 높은 중요관직인데 어찌 신라인에 줄 수 있는가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新羅勾當所 押衙 張詠, 楚州 新羅坊 惣官

31) 朱江, 前揭論文, PP.248 - 249. 勾當 新羅通使 押衙는 唐朝에서 設置한 外國事務를 管理하는 政府官吏라 했다.

32) 李宗勳, 「中國 山東半島 에서의 張保臯와 新羅人들」, 「張保臯」, 李鎮出版, 1993 PP.136 - 137 에서 中國學者 袁曉春이 押衙는 中國의 高位 官職이라 밝힌 內容의 再 수록

33) 劉永智, 「山東 威海 新羅坊 세미나」, 발표자료

薛諄은 中國人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張保臯의 海上活動과 僑民社會와의 관련은 唐의 정치 구조속에 몰입해버리고 만다. 이에 대해 山東地域의 楚州, 漣水, 揚州에 걸쳐 분포 되어있던 僑民社會에 대해 이미 內陸 정착자이든 무역 종사자 이든 간에 동일한 자치권이 허용되었을 것이라는 既存³⁴⁾의 연구와 대비하여 재 考察 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되는 자치권의 허용은 당의 국제적 성격에서 온 개방정책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이는 異民族의 移住者에 대한 자료인

唐戶令「諸沒落外蕃得 還及化外人歸朝者 所在州鎮 給衣食 具狀送奏 聞 化外人於寬鄉附貫」³⁵⁾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인과 사무역을 행할 수 있었고 또 중국인과 통혼할 수 있었으며 동류의 외국인간의 분쟁은 그들 본국법을 적용받았다」³⁶⁾라는 논거와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논거는 「諸化外人同類 自相犯者 各依俗法 異類相犯者以法律論」³⁷⁾이라한 唐律疏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내부의 문제는 변방내의 본민족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라방은 唐代 蕃坊制度의 형식일지 모르지만 蕃坊內의 在唐 外國人들은 그들 本民族의 생활습관과 전통적 풍속을 보전한 외에 일정한 自治權도 향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산라방, 신라소는 김성호씨의 주장에 따라 당의 제도속에 놓여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다고 해도 자치기구의 성격과 치외법권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赤山法花院은 張保臯가 세운 寺刹 인가?

일반적으로 張保臯의 해상세력을 이야기할 때 赤山地域의 新羅 僑民

34) 李永澤, 「9世紀 在唐 韓國人에 대한 考察」, 『海洋大論文輯』, 17輯, 1982 PP. 79

35) 全海宗, 『韓中 關係史 研究』, 一潮閣, 1974 PP. 3 에서 再引用

36) 全海宗, 前揭書. PP. 2-4

37) 「唐律疏議」卷6, 名例化外人相犯條

社會와 신라의 群小 해운조직들을 통하여 巨大한 해상활동을 이룬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적산법화원은 張保臯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적산지역에 설치된 해상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 곳이라고 既存의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적산법화원의 설립연대를 통해서 많은 설이 존재한다. 그것은 적산법화원에 관한 근거는 圓仁行記(개성 4-4-20)³⁸⁾에 기록된 내용인 「적산법화원은 본래 張保臯가 세웠다」라는 것이다. 그후 법화원은 張保臯의 個人寺刹로 정립되었다.

먼저 중국 조선문제연구소의 李宗勳³⁹⁾씨에 의하면 설치연대를 통하여 張保臯가 법화원을 세우기전(803-823)에 같은 위치에 다른 사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있다. 이 사원의 이름은 법화원이라 하지 않았고 신라승원도 아니었다. 따라서 적산법화원은 張保臯가 청해진 대사를 맡은후 당나라에 거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설치되었고 그 사원을 법화원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김성호씨는 이에 대해 張保臯가 무령군 소장으로서 이씨 일가를 토벌한 819년에 淄靑節度使로부터 李正己 일가의 지배하에 있던 적산지역의 방대한 토지를 얻어 항해사찰을 세운 것이며 이는 張保臯의 개인 사찰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張保臯의 활동은 당의 정치권에 연결된 하수인의 역할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물론 자료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재 고찰되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張保臯의 海上貿易은 中國 淄靑節度使의 貿易活動인가?

張保臯의 해상활동을 당의 淄靑節度使 王智興의 지시에 의한 무역활동의 일부라고 정리한다면 지금까지의 張保臯에 관한 연구는 모두 백지화 해야하며 張保臯에 관한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학

3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年 4月 20日條
「清寧鄉赤山村 山裏有寺 名 赤山法花院 本張保臯初所建也」

39) 李宗勳, 前揭論文, PP. 141

자보다 먼저 張保臯를 연구한 「라이샤워」박사⁴⁰⁾의 방대한 연구업적을 휴지화 해야하며 그가 주장한 청해진 세력을 「商業帝國」이라했고 張保臯를 「商人君主」라 칭했던 그의 논거는 의미를 상실 하게된다. 김성호 씨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목적 의식은 張保臯가 결코 이민 1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또한 신라가 무역 주체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明州 舟山群島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新羅 僑民社會(비류백제인 주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적인 논조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圓仁行記에 나타난 기록까지도 씨의 목적의식과 편견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圓仁 行記(개성 4-6-27)「장대사의 교관선 2척이 적산포에 도착하였는데 최운십이랑이 이끌던 張保臯의 무역선이다」行記(개성4-6-28)「張保臯가 파견한 대당매물사 최병마사가 절에 왔다」라는 기록을 통해 崔暉十二郎을 崔押衙, 崔兵馬使라는 관명이 당나라의 공식 관명이기 때문에 張保臯가 이끌던 무역선은 신라측 무역선이 아니라 淄靑 절도사가 파견한 당나라 무역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씨는 張保臯를 치청절도사의 수하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단지 押衙, 兵馬使가 당의 관명이라는 것만으로 단정한다면 지금까지 씨가 인용한 圓仁 行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張保臯에 관한 최초의 국내연구⁴¹⁾도 해상무역과 관련한 연구 결과임은 고대 국제무역의 전개라는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상기 교수는 張保臯의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통일이후 신라는 안으로 산업의 발달과 밖으로는 당과의 교통이 크게 열림에 따라 신라 귀족들의 변화된 생활양식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姜龍洙 교수는 ⁴²⁾ 張保臯의 무역사절에 回易使, 遣唐賣物使등의 칭호가 붙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성

40) O,E Reischauer, 前掲書, PP. 104

41) 金庠基, 前掲論文, 註11과 同

42) 姜龍洙, 「韓國貿易의 史的研究-羅末對外貿易을 中心으로」, 「論文集」卷5, 馬山大學, 1983

격보다 國際 무역사에 있어 신라의 국가적 존재를 나타내 보인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기존의 연구가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또 8-9세기의 羅,唐,日의 정치 경제구조를 통해서 합당 하다고 본다.

장보고의 해상무역이 김성호씨의 주장처럼 중국 치청절도사의 무역 활동 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국내적 상황과 외적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憲德王(809-825) 시기에 잇따른 天災와 凶年은 지방민의 일반적인 飢死와 貧困을 가중시켰다.⁴³⁾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민들이 할 수 있었던 대응책은 盜賊이나 他國으로의 流亡이었다. 여기서 漂流民,私商,또는 海賊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의한 私貿易의 성행은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속에서 나타나는 私貿易의 발전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반대로 지방민의 窮乏과 饑饉에 반하여 귀족들의 생활은 사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金入宅」 「四節遊宅」⁴⁴⁾의 기록은 수입품 소화시장의 확대와 지배계급의 무역품 수출 능력의 증대를 시사해 준다하겠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으로서는 朝貢貿易을 통한 수출품은 대부분이 사치품이고 奴婢도 수출품으로서 당시 해상세력의 중요한 收入源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외무역은 귀족들의 사치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조공 형태의 교역 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되어지는 것은 海上 交通手段의 발달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발해와의 적대관계가 이루어 지면서 지금까지 활용 되어져왔던 山東登州-遼東沿岸-西海岸-唐恩浦(南陽)에 이르는 航路를 상실하자 신라는 登州赤山 으로부터 黃海를 직접 橫斷하는 항로가 활용되어 私貿易活動은 증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 즉 羅,唐간의 각 國家가 가지는 정세의 변화는

43)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3年(821) 春條

44) 李永澤, 前掲論文, PP. 61

航海術,造船術의 발달과 아울러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치청절도사와 관계없이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충분히 장악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圓仁行記⁴⁵⁾를 통해서 보면 揚州에는 신라인 貿易商이 있었다.

즉 日本語를 잘하는 對日 貿易商 王請이라는 新羅人 상인이며 中國人 張覺齊와 同業인 듯 하다.

이렇게 볼때 揚州에는 신라인 海上貿易商이 많아 貿易으로 巨富가 된 신라인 무역상들은 王請,王宗 이외에도 많았을 것이다. E.O Reichauer⁴⁶⁾는 白居易 詩文을 모두 買占 하여간 신라인이 있었다는 것과 또 당시의 著名畫家의 작품 10 여점을 高價로 買入해간 신라 상인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揚州는 신라 무역상뿐 아니라 波斯國, 占婆國상인도 대거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이러한 상황에서 장보고의 활동을 唐의 淄青節度使 貿易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은 주어진 자료에 나타나는 신라인의 海上貿易 활동 자체가 씨의 주장처럼 그렇게 허술한 규모일 수 없는 大商人들의 활동과 장보고의 활동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看過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張保臯의 歸國 動機와 淸海鎮 設鎮은

唐의 政治的 問題 때문인가 ?

張保臯의 歸國 動機와 淸海鎮 設鎮문제에 관한 1차 사료인 「三國史記」「樊川文集」「新唐書」의 내용은 장보고의 歸國 動機에 관해 신라인을 奴婢로 賣買하는 해적소탕과 관련되어 있음은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데는 미비한 점도 있다. 이는 1차사료가 모두 樊川文集의 기록

45)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846年 1月 8日條 「新羅人王請 來相看 是本國 弘仁十年(819) 流着出州國之唐人張覺濟等同乘之人也 一爲交易諸物」

46) E.O Reischauer, 전게서, Arther Waley, 「The Life and Times of Po Cho-i」, Alexander c.Scope 「t'ang ch'ao ming hua Lu」

4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年(839年) 1月 6日條. 「得修此闍波斯國 出千貫錢 占婆國人 捨二百貫」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既 연구자들은 각자의 견해를 설정 한후 그들 나름대로 研究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김성호씨가 주장하는 在唐新羅人들의 本國 進出 이라는 점과 당의 淄靑 절도사 王智興에 의한 무역활동의 연장 이라는 논거는 수용 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하여 李永澤교수⁴⁸⁾는 9세기 慢性的 饑饉과 政治的 혼동 속에 놓여있는 신라 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하려는 자들의 수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移住 志望者들을 輸送하는 群小 海上勢力을 자신의 統制 아래 두는 한편 在唐신라인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羅.唐.日 삼국무역을 모두장악 해야겠다는 포부가 작용 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張保臯의 포부는 9세기 한국의 각 島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群小 해상활동자들(海賊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海上集團)이 재당 신라 교민사회의 무역활동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조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盧德浩⁴⁹⁾씨도 있다.

李基東교수⁵⁰⁾는 張保臯의 귀국문제에 언급하여 唐은 821년부터 李師道 등의 蕃鎮 討伐 後부터 兵員의 수를 減縮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과중한 財政負擔으로 부터 벗어 나려 하고 있었다고 지적 하면서 張保臯가 소속된 武寧軍도 減縮정책이 실시되었을 것이며 張保臯가 군을 떠난 계기가 귀국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있다. 이와같은 논거는 蒲生京子⁵¹⁾ 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金德洙교수⁵²⁾는 청해진의 設鎮이유를 국제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있다. 즉 한.중.일 3국의 교류에 중간 寄港地로서의 청해진이 가지는 중요성과 항해 관리자로서 그 지리적 역할이 매우 중요 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

48)李永澤,前掲論文, PP. 68

49)盧德浩,「羅末新羅人の海上活動에 관한 研究」,『史叢』,高大史學會,1983 PP.23 - 24

50)李基東,前掲論文, PP.99

51) 蒲生京子,前掲論文,註 18과 同

52) 金德洙,前掲論文,註 23과 同, PP.79

하고 있다.

중국학자 王杰⁵³⁾ 교수는 武寧軍 절도사 王智興과의 관계를 중국측 사료를 통해 張保臯의 귀국동기와 청해진 설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왕걸 교수는 張保臯의 귀국 동기를 서주군 절도사인 왕지홍이 張保臯를 강제 축출 하였기 때문에 귀국하였다 라고 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王智興은 徐州의 군대 兵士로부터 從軍하여 절도 부사까지 단계적으로 승진한후 822년 반란을 일으켜 무령군 절도사가 된 사람이다. 왕지홍이 서주에서 벼슬했던 시기를 780년부터 832년 까지로본다면 張保臯는 왕지홍과 같이 근무 한 셈이 된다. 여기서 왕교수는 왕지홍의 탐욕과 편협함을 사료를 통해 증명하면서 장보고의 귀국동기를 밝히고있다.

첫째 張保臯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중 張保臯를 昇進 시키지 아니 하였다.

둘째 왕지홍은 병사 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石雄장군을 퇴진시켰다.

셋째 張保臯의 친구인 鄭年이 무령군에서 나와 漣水縣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하여 張保臯와 정년은 동일하게 왕지홍으로부터 강제 퇴임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왕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829년 왕지홍이 부사로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張保臯는 왕지홍의 반대파에 있었던지 왕지홍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축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張保臯가 왕지홍의 수하로서 왕지홍의 무역활동에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김성호씨의 주장보다는 매우 긍정적 일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 분석하여 새롭게 정리 해가야 할 것이다.

53) 王杰, 「An Examination of the boat form between the chao chuan of Tang dynasty and Zhang Baogao's Trader」, 1997 韓國 航海學會 세미나 發表資料

따라서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한하여 김성호씨의 주장을 재 검토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되어진다.

5) 新羅는 海上國家가 아니었다?

① 朝貢貿易

김성호씨는 단지 관찬사료인 「三國史記」기록에 의해 신라 1천년의 역사를 통해 해상무역의 형태를 찾을 수 없으며 張保臯의 무역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古代 우리나라의 무역관행을 이해 해야 할 것이다.

古代, 특히 羅末의 海上貿易은 중국과 주변 國家간에 이룩된 전통적인 朝貢 관계 속에서 형성 되었음을 알아야한다. 물론 기본적인 무역관행을 김성호씨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8-9C세기 중국은, 個個人的 私무역은 「爲人臣無境外之交」라는 원칙 아래 엄격히 금지 되고 있었고 이는 중국과 조공무역을 담당하는 상대국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는 관찬사료에 기록될 일이 없다.

이에 관해 全海宗⁵⁴⁾의 주장을 보면 신라 中古期까지의 해상무역 형태는 朝貢貿易이며 무역경영은 使行의 왕래에 의한 公認된 무역이었으나 使行에 의한 무역 중에도 公貿易과 私貿易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密貿易도 성행했다고 서술 하고있다.

② 私貿易

관찬사료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私貿易이 본격적으로 성행한 시기는 조공무역과 관련한 견당사의 파견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본다.

盧德浩⁵⁵⁾씨는 이와 같은 사무역의 발생 배경을 羅·唐·日의 국내

54) 全海宗, 前掲書, PP. 100

55) 盧德浩, 前掲論文, PP. 6

사정으로 설정하고

첫째 唐은 安祿山의 亂(755-763)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에서 私무역 성행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둘째: 신라는 선덕왕 이후 신라하대(780-935)의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데서 사무역의 성행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羅·唐의 私무역은 국가의 통제가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성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엄격한 골품제 사회의 신분적 제약으로 중앙정부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 세력과 국가의 착취와 천재지변에 시달렸던 지방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타국에의 亡命과 생업의 수단으로 활동된 邊境 海岸지방의 가장 어려웠던 船舶의 建造 또는 私무역상으로 변모해 갔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역은 신라의 지배층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적·경제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말 하면 지배층들의 수준 향상은 사치품의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在來形式의 朝貢貿易만으로는 지배계급의 사치품에 관한 욕구가 증대되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民間商人으로 하여금 사무역 활동을 성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호화를 일삼아 모두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예절이 참담해지고 풍속이 파괴 됨에 이르렀다. 이에 옛법에 따라 분명히 명하노니 그래도 만일 일부러 범하는 자에 대하여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⁵⁶⁾

이와같은 사료가 있는데도 신라는 海上貿易과 전혀 관계없는 國家였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張保臯의 활동이 唐 정부의 의도에 의한것이기

56) 『三國史記』, 卷 33, 雜誌, 色服條, 興德9年(834)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료의 내용은 신라의 해상활동이 아닌 당의 해상활동의 확대와 관련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의 내용중 日野開三郎⁵⁷⁾의 「신라 해상무역의 융성은 당나라 말기까지 200여년 계속되었으며 동 지나해를 재패했다」라는 연구결과와 E.O 라이사워⁵⁸⁾가 「중국 동부와 신라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은 대부분 신라인의 손에 의해 장악되었다」라는 논거가 씨의 단순한 관찬사료 해석으로 백지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일반적으로 조공 제도에서의 무역은 공무역 이지만 언제나 공무역은 사무역(밀무역)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사무역은 관무역의 유형속에 포함시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조공무역 자체가 관무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輸出.輸入品의 성격이 대부분 사치품으로서 당시 해상활동 종사자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해상활동과 관련한 사무역의 성행은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무역의 성행과 관련한 신라국내의 사정은 통일후 人力, 領土의 增大와 社會安定으로 인한 생산력과 산업 발달에 따른 지배계급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치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서도 그 실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공무역은 張保臯의 활동 이전부터 있어 왔고 또 관행화된 사무역도 활성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張保臯의 출현후 나.당.일간의 사무역이 확산 되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張保臯 출현 부터 그후 200여년간 신라의 해상 무역이 동지나해를 재패했다는 일본학자 日野開三郎의 연구는 매우 근거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9세기 張保臯의 등장은 사무역의 요충지이며 신라인들의 본거지인 登州, 赤山, 楚州, 揚州를 배경으로 사무역을 성행 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57) 日野開三郎, 「羅末 三國의 鼎立と對大陸海上 交通貿易」, 「朝鮮學報」16輯, 1960

58) E.O Reischauer, 前掲書

6) 僑民 社會는 張保臯와 무관한가?

김성호씨는 僑民社會의 성격규정에서 재당 신라인들의 해운조직은 張保臯와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설치된 신라방, 신라소에 기초한 거대한 해운체계에 의해 움직였으며 이와 같은 해운체계는 일찍 海運技術을 소유한 백제인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재당 거주 한인들의 집단 사회는 838년 圓仁이 목격한 신라방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속해왔을 것이다. 또한 이 신라방의 인적 구성원은 반드시 신라인에 한하지않고 唐에 강제 혹은 自意로 移住한 고구려, 백제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신라, 고구려, 백제인으로 이합 집산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일정한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왔던 恒久的인 정주자였음을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그들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민족성으로 唐人들이 기피해 왔던 해상활동에 참여 해왔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생계의 수단을 삼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 신라후 신라인으로 통칭되어왔고 신라인 사회조직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治外法權的인 자치권을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당 교민사회를 이해 한다면 해운계를 운영한 주체를 구백제인의 전유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僑民社會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되어진 유이민의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① 新羅 流移民의 실태

신라 3국 통일후 留學이나 求道를 목적으로 入唐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많았고 그 중에 육두품 출신의 金雲卿, 최승우 등 唐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58인이나 되었다.⁵⁹⁾

또한 헌덕왕 8년 (816)에는 흉년이 들어 170 餘人의 신라 飢民이 浙

59) 鄭元容, 『文獻撮要』卷7, 東國入唐登弟條

東地方으로 이주하여 먹을 것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주해 간 신라인들은 절동 지방인 浙江省의 楚州, 甌水, 揚州 등지의 신라방 주민이 되었을 것이며 이들은 해상생활의 종사자가 되었을 것이다.⁶⁰⁾

문성왕 2년(840) 張保臯의 활약 시에는 使臣의 왕래도 없었는데 質子和 留學生 105명을 귀국시켰던 사실을 통해서 이전부터 많은 신라인이 당에 移住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¹⁾

② 高句麗 流移民의 실태

高句麗 멸망(668) 이후 신라에 흡수되지 않은 고구려 유민 중에는 唐朝廷에 의해 강제로 中國內地에 移徙된 수가 적지 않았다.⁶²⁾

또 669년(三國史記 기록)에도 38,300戶의 高句麗人이 江淮의 남쪽과 山南 지역에 이주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당에 이주된 고구려 유민 중에는 男生의 아들 獻誠과 같은 왕족인 高仙芝, 王恩禮, 李正己 등의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唐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적지 않다.

③ 百濟 流移民의 실태

660년 百濟 멸망이후 唐에 강제 移住된 유민들도 많았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義慈王, 太子 등 58인 이외에 대신(大臣) 장사(壯士) 88인과 백성 12,807인이 唐에 移住되었다고 한다.⁶⁴⁾

이렇게 기록에 남겨진 移住民 외에도 많은 수의 流移民이 중국으로 이주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이주민들(고구려, 백제, 신라유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 집단으로서 신라방, 고려방을 이

60) 『舊唐書』卷199上, 新羅傳, 元和 11年

61)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文聖王 2年條

62) 李丙燾, 「高句麗의 一部 流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 『震檀學報』25-27合集, 1964 PP.5-10

63) 『三國史記』, 卷22, 高麗傳. 『冊府元龜』卷100, 外部亡滅條

64)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義慈王條

루어 생활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족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張保臯는 또한 그들의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해상활동을 이루어 갔을 것이라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 「新唐書」 「舊唐書」 「樊川文集」 등의 1차사료에는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 4월 이전의 張保臯행적에 관하여 그가 당의 서주로 들어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는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 남겨 놓았을 뿐 828년 이전까지의 張保臯 행적에 관한 것은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교민사회를 이끌어 온 것은 張保臯가 아니라는 異說도提起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 1차 사료의 내용까지 부정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자신(김성호)의 추론과 目的意識에 의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당한 연구방법은 아닐 것이다.

圓仁行記는 新羅 僑民社會에 관하여 비교적 상술된 자료이다.

圓仁行記중 山東 赤山 淸寧縣을 중심으로 한 沿岸일대의 신라인 사회를 관장하였던 押衙 張詠이나 淮河 流域의 신라방 惣官 薛詮, 劉愼言 등의 인물은 在唐신라인 사회에서 일종의 신라 領事館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中國政府에 대한 관계는 공적인 것이나 本國정부(신라)에 대해서는 私的이요 독립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押衙나 惣官등이 唐의 관직이기 때문에 당의 地方官制下에서 唐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在唐신라인을 총괄할 수 있는 自治的인 職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張詠이나 薛詮, 유신언 등은 張保臯의 私的인 部下로서 행동 하였다고 본다.

이는 張保臯가 청해진 대사로 귀국한후 張保臯에 의해 건립된 적산 법화원의 관리자가 林大使, 王勳, 張詠, 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실질적인 張保臯의 支配 아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연구되어 져야할 문제 이지만 張保臯가 무령군

군중 소장으로서 실력을 행사했을 때 신라 교민사회에 대한 그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이며 또한 그의 폭넓은 성격은 충분히 교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해상무역에 관한 제반의 문제들을 관리해 갔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전제로 한다면 張保臯는 1세대가 아니라 비류 백제인들의 후손으로서 해상권을 장악하였다는 논지는 설득력이 없다.

新唐書 東夷傳에 나타난 「張保臯, 정년전」의 기록은 張保臯의 행적 중 유이민 1세대를 증명해주는 기록이 되고 있다. 김성호씨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는 번천문집 등의 1차 사료를 활용한다. 그러나 張保臯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번천문집의 내용을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張保臯는 이민 1세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그 기록을 보면

「정년이 빈한해져 연수에서 타향살이하면서 戌州人 馮元規에게 동쪽으로 돌아가 張保臯에게 의지할 뜻을 비치니 만약 張保臯가 저버리면 어찌 그 손에 죽을 수 있소 라고 했을 때 정년은 배고파서 죽는 게 病死 당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물며 고향에서 죽는 걸요! 하고 마침내 떠난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張保臯와 鄭年은 친구간이었으며 唐에서의 활동도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張保臯가 이민 1세대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張保臯는 移民 1세대로서 오랜동안 중국사회에 토착화 되었던 교민 사회를 이끌고 羅. 唐. 日 의 해상활동을 주도 해왔던 무역왕이었음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7) 明州 舟山群島 普陀島만이 在唐新羅人の 貿易 根據地인가

浙江省 杭州灣의 明州는 海運産業과 海上貿易 활동의 본거지로 김성호씨는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유일하게 唐의 정부로부터 治外法權 지역인 蕃으로

지정되었으며 선박, 건조, 선박운항, 해상무역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이 지역은 비류백제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張保臯에 관한 연구에 인용되었던 1차 사료 및 그외의 모든 자료를 통해서 張保臯가 明州(寧波)에서 활동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명주는 羅. 唐. 日을 연결하는 동해 쾌속 항로로서 삼국교류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관심있는 일이다. 특히 김성호씨는 明州지역 普陀島를 재당 신라인들의 貿易 根據地로 설정하고 장보고의 활동까지 보타도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圓仁行記의 모든 기록중 揚州, 楚州, 赤山浦 漣水縣 등지의 신라 교민사회의 문제를 전혀 고려 하지않은 주장 일뿐이다.

이러한 추정은 중국의 林士民⁶⁵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張保臯에 관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외무역을 독점하였으며 그의 통상 활동은 日本 中國(明州)등지 에서 가장 큰 해상제국의 大商 이었다고 했다. 이는 단지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명주지역과의 연결 가능성은 그 당시 張保臯의 교역품과 관련된 도자기로부터 추정 되었겠지만 保臯가 명주에서 상업을 경영하고 新羅, 中國으로 사신을 보냈다는 시각은 좀더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주는 9세기경 이슬람계와 중국 해상교통이 발전하였던 중국 4대 名港中의 하나로 파악된다. 그러나 宋代에 들어와 시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明州港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고 명주항에 대한 기록도 宋代와 高麗시대에 걸쳐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다. 실제 중국과의 무역항로는 양국의 국가정세의 변화와 항해술, 조선술의 발달에 따라 변천 해왔으나 장보고 세력 등장시기의 항로는 등주 적산으로부터 황해를 직접 횡단하는 항로가 많이 활용되었다고 본다. 徐兢⁶⁶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보이는 명주에 관한 기록에 나타나는 航路는 明州(寧波)-定海-沙尾(陽子江口)-黃海-黑山島-

65) 林士民, 「唐代 東方 海上活動과 明州港」, 「張保臯」, 海洋經營史研究, 1993

6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4, 海道條

江華 禮城港 에 이르는 南方 항로로서 이 항로는 주로 高麗 이후에 많이 이용되었고 장보고의 활동 시기에는 楚州 揚州 登州 의 北方航路 를 취하고 있었다

중국 揚州 商科大學 朱江 교수 :「唐과 新羅의 海上交通」을 통해서 보면

첫째, 당과 신라간의 교통은 초주 (現 : 淮安)이북, 현재의 강소성과 산둥성과 연해안의 州와 縣의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신라방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둘째, 唐의 楚州는 회남도에 속하여 통상과 시박사의 직무를 가지며 양주의 신라방, 구당 신라소 내지 그 사무 관원들은 회남절도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신라방은 단지 인구가 많은 외국인 거주구역인 蕃坊의 하나로서 장주, 명주, 양주 등에도 번방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명주만 특별히 독립된 藩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명주의 해상활동가로서 김성호씨는 張保臯의 활동을 훨씬 능가하는 張支信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문헌에 張友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지신의 오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장 교수는 장지신을 신라인으로 보지 않고 중국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성호씨의 주장대로 장지신의 해상무역활동이 張保臯를 능가했다면 장지신의 무역활동의 기반과 무역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찾을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또 그가 중국인(당)이라고 주장 하는데 대한 반론의 근거도 없다. 장지신에 관한 기록은 「안상사해동전」에 우수한 항해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847년 명주에서 일본의 치가도 나유포에 3일만에 도착했고 862년 진여 법친왕의 入唐時 배를 건조하여 4일만에 명주항에 도착했다는 기록등이며 무역활동에 관한 기록은 없다

특히 명주지역은 圓仁行記를 통해서 볼 때 圓仁의 통과 지역이 아니며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특색이다. 그러나 명주지역에서 신라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음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V. 결 론

김성호씨의 「중국 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은 비류 백제설에 근거한 대하 역사 소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성호씨는 중국의 25 史를 충동원하여 그의 논리를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중 張保臯의 역사적 활동 즉 海上貿易活動에 관해서는 既存의 研究를 백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업적 또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씨의 주장은 엄충난 자료를 동원했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적인 주장을 정립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1차적 사료를 활용하고 또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1차적 사료를 부정하면서 비류백제에 근거한 역사를 다시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1차적 사료인 三國史記. 新唐書. 舊唐書. 樊川文集 등을 통털어 청해진 設鎮(828) 以前의 張保臯행적은 唐의 徐州武寧軍 軍中小將이 되었다는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 있다는 점을 통해 본다면 엄충난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그의 주장을 정립해 갔다는 업적은 인정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씨의 노력은 지금까지 張保臯연구가 일단락 되었다는 기존의 研究者들에게 다시 한번 재연구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圓仁 行記에 나타난 新羅僑民社會를 1세대 移民集團인가 라는 문제로 부터 張保臯의 해상활동과 관련 되어지지 않는다면 新羅는 해상국가 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 提起는 일고의 가치없는 노고이다. 그러나 교민사회에 관한 재연구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張保臯 大使라는 호칭의 大使는 무엇이며 이 호칭은 신라에서 주어진 것이냐 唐에서 주어진 것이냐 라는 문제와 武寧軍小將이라 할 때 소장의 계급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계급을 통하여 張保臯가 신라 교민 사회에 대하여 할 수 있었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또 씨가 제기한 문제중 赤山法花院은 航海寺刹의 성격으로 唐의 淄青節度使가 통제하는 관할 구역인가 張保臯 세력의 근거지였나를 파악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 마저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張保臯의 귀국동기에 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재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明州 舟山群島 普陀島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자료를 통해 볼 때 新羅 僑民社會가 있었을 것이며 명주 지역에서 최근에 발견된 신라 토기와 고려자기의 흔적들과 연결하여 보타도의 신라교민 사회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성호씨의 연구성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지만 씨가 집착하고있는 비류백제설과 관련하여 張保臯의 실체마저 1세대 이주민이 아니어야하고 張保臯의 활동무대였던 徐州. 揚州. 楚州. 漣水縣의 기록마저도 부정하면서 보타도를 張保臯의 근거지라 주장하고있는 문제에 관해 비판적인 연구가 선행 되어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열거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8-9세기에 이르는 新羅. 唐. 日本의 政治, 經濟, 社會的인 면을 통하여 張保臯의 등장 배경과 활동범위 무역활동의 실상을 정립해 가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배경에서 나말의 왕위쟁탈전과 김양의 성격, 당의 정치적 배경에서 李正己 一家의 활동과 당의 節度使 체제의 政治的 성격, 職官制 등을 폭넓게 연구하여 張保臯의 실체를 새롭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작업을 통해 김성호씨가 주장하는 비류백제설의 허구는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만약 비류 백제 설이 허구일 경우 그의 엄청난 노력은 그대로

소설이 되고 말 것이다.

김성호씨의 노력은 1892년 「비류백제와 일본 국가기원」 1984년에 발표된 「해양강국 비류백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1996년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을 통하여 비류백제설의 완결 편으로 정리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김성호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설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조설화>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졸본에 도착한 후 그곳 왕의 둘째 공주와 결혼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고 왕위를 이었는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인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무리를 이끌고 남하 하였다.

아우인 온조는 위례성(서울)에 형인 비류는 미추홀(인천)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미추홀은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살기가 곤란하므로 비류는 후회하던 나머지 죽어버리고 온조가 백성을 모아 백제를 세웠다.

<비류설화>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인 우태와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 소서노가 결혼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주몽은 소서노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세웠다. 그런데 주몽이 부여에서 낳은 유리를 데려와 왕위를 잇게 되자 소서노의 아들 비류는 동생 온조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남하 하여 미추홀에서 백제를 세웠다.

위의 두 설화는 백제국의 성장과 그 지배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상당기간 거의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며 나란히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온조계 집단이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삼국사기에는 온조왕에서 고이왕까지의 기사들은 주로 온조계이며 역대 백제왕들은 모두 온조계였다.

온조설화에서는 고구려에서 망명해온 형 비류는 자살하고 동생 온조가 백제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류설화를 보면 비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충남 아산지역

에서 공주지역으로 옮겨 해상왕국을 세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공주에 도움을 비류백제는 396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기습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그 지배층은 일본으로 옮겨가 천황 국가를 건설했다.

이러한 비류백제의 기록을 근거로 김성호씨는 해상왕국과 일본 천황가 형성을 가설로 정립해 가는 중 張保臯마저 비류백제의 후손으로 설정하고 말았다.

우선 김성호씨의 엄청난 상상력과 많은 자료를 동원하여 새로운 역사의 재발굴이라는 작업에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비류백제에 관하여 「한국역사 연구회 :고대사분과」에서 저술한 「한국고대사 산책」을 통해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제건국설화는 온조계통과 비류계통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기원전후의 시기에는 충청도, 경기도, 일대에 이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정치체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비류와 온조는 기록에 나타난 대표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2)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류는 충남 아산에서 공주지역으로 옮겨 해상왕국을 건립했다고 주장하는데 비류집단의 근거지가 충남일대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3) 공주에는 서기 18년 비류백제가 도움을 유적유물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지금 서울에는 백제의 유적들이 상당수 남아 있지만, 비류 백제가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서기 100년 무렵 비류백제가 일본 큐슈에 진출하여 침로를 세웠다는 것도 문헌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무렵 큐슈지방의 유적, 유물은 백제계통이 아니라 주로 가야지방의 영향을 받은 야요이 문화가 발굴되고 있다. 요컨대 비류 백제설은 논리의 비약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가설일 뿐이다. 일단 김성호씨의 발상은 술하게 놓여진 설화 하나 만으로 한. 중. 일의 해상활동과 연결하여 많은 문제를 던져준 것은 張保臯 연구와 관련한 학자들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張保臯 연구과정에서 張保臯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봉착 한다면 완도는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가 청해진을 선택한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인가, 또는 중국의 교민사회 성격이나 명주(영파시)가 가지는 해상세력권은 무엇인가와 해상항로는 어떻게 정리 해야 하는가를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아야겠다.

